부유한 성자는 없을까?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에 대한 서평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기독교세계관연구소 소장)

양낙흥 저 | IVP

성경적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을 소개해 달라는 한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다. 주로 직장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성경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큰돈을 벌어 사업과 선교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생각났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사둔 땅이 큰 폭으로 올라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분이었다. 또, 많은 돈을 벌어 이에 대해 책을 쓰신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이 분 역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경우였다. 두 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다가 부자가 되었고 이를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따른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웠다. 모든 사람이 어느 땅을 살까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여 재산을 모은 분도 계시고, 모범적인 경영으로 많은 기업을 일으켜 거부가 된 분도 계시다. 그런데 이처럼 차근차근 돈을 모은 분들은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소개해 보았자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었다. 회계학 전공인 나 자신도 성경적인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목사님께 "그런 분을 찾을 수 없네요." 고백하고 마무리 하였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는 "왜, 목사들은 돈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까?"라는 교회 성도님의 강요(?)에 의해 목사님이 쓰신 것이라고 한다. 머리말에 나온 대로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눈을 뜨고, 하루 종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뛰어 다닌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사역을 제쳐 놓고 나만의 이기심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만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죄만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책이 들곤 한다. 차라리 직장 일을 제쳐 놓고, 전도를 나갔다면 참으로 복 받을지 모르는데 말이다.

"왜, 목사들은 돈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까?"라는 호통을 들었을 때, 목사이자 신학자인 저자는 적잖이 당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성스러운 신학에 종사하시는 목사님께서 가장 속된 영역의 상징인 시장판(market place)에서 날라 다니는 돈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700구절이 넘는다. 성경의 구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가장 많은 주제는 예상대로 "사랑"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한다. 성경이 가장 속된 주제인 돈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이처럼 성경에서 돈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돈을 벌고, 보유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제1부는 몇 년 전 논쟁이 되었던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해 언급한다. 저자는 김동호 목사의 청부론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보다는 주로 인격과 도덕성에 관련된 일로 묘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봉 목사의 청빈론은 "가난을 이상으로 제시함으로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심지어 죄의식을 유발하는 점이 없지 않다"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선물을 누리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는 갈뱅의 견해를 인용했다.

제2부에서는 성경적 복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상징적인 복과 신약의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부를 비롯한 현세적 복은 참된 복의 모형이요, 상징"으로 우리가 기대해야할 실체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적 행복이요, 오는 세상의 복락"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제3부는 이 책의 핵심 부분으로 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탐심을 이기는 자족, 염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의 나눔(나눔은 제5부에서 언급하고 있다)을 제시한다. 이들 세 원리는 부에 대한 성경의 핵심 원리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기를 권한다. 또 이 챕터에서는 십일조에 대한 신학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제4부는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인 일 중독, 이윤 추구, 목회자와 물욕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제5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부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가짐(소유), 누림(향유), 나눔(공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소유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세, 누림은 절제 속의 향유, 나눔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여야 하는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결론을 맺는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는 부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탐색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학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면, 우리 같은 경영 ·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기초에 입각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도 가장 세속적인 주제라는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책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것이면서 우리를 타락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에 대한 명확한 실천 지침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도 아닐 뿐 아니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삶마다 차이가 있어 획일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강구함에 있어 가급적 구체적이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precision without legalism),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맞추되 타협하지 않는다(accommodation without compromise)는 포스터의 충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를 내려놓으며, '부유한 성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등 신실한 부자들이 많지만, 이들을 성자로 보기는 어렵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가진 것이 없었다. 우리 곁에 부유한 성자의 모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성자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 새롭게 드는 고민이다.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기독교세계관연구소 소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생활』(이상규,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윤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 Ⅰ, Ⅱ』(11인 공역: CUP), 『공학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기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IFRS 중급회계』(경문사) 등이 있다.